

Robert Vannoy 박사, 구약 역사, 강의 25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박사

역사적 이야기를 설교함 - 창세기 24장

3. 아브라함의 실패 또는 실패, 결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 즉 실패, 결점”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세 번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저는 창세기 16장의 금요일 시간 끝에 아브라함과 하갈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녀의 여종 애굽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에서 당신은 그것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뿐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더 읽게 됩니다.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잉태하였더니 그가 잉태한 줄을 보고 그 여주인이 자기 눈에 멸시를 받는 것 같더라” 고 했고,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하녀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네 뜻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그에게 학대를 가하자 그 얼굴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소개되었고 우리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17장 21절에서는 약속의 노선이 하갈을 거쳐 이스마엘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라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통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25장 12-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계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한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막다른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혈통은 이삭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 계속되는 이야기의 노선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보스(Vos)는 그의 저서인 아브라함의 성서신학에서 “아브람은 그 앞에 있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그 자신의 힘이나 자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성경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오는 약속의 실현과 약속을 주시는 일에 엄격한

초자연주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서로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을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 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마엘과 에서 의 후손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 내 생각에 아랍 국가는 이들에게서 유래될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어떨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나중에 아내인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두라를 아내로 삼았으며 그 명단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4절 전반부에는 그두라 자손 가운데서 나온 미디안 족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으며 물론 롯에게서 나온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촌 민족은 이스라엘인, 암몬인, 모압인, 이스마엘인, 미디안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이런 저런 연결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1. 구속=역사적 의의

좋습니다. 4번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입니다. 거기에는 하위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 제목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하위 요점을 제시한 다음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서사에 접근하는 방식, 의미,

의의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A.는 “구속사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그 구원의 역사적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삶에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봅니다. 확실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분쇄하리라”는 약속이 출발점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 노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 예시적 또는 예시적 의미

B.는 “모범적이거나 예시적인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실함의 위대한 모범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종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예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나 예로 주어졌습니다. 그 감각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구약성서의 다른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그 점에서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역사적 부분에 대한 구속적 역사적 관점과 예시적 관점의 비교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성향이나 의미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적 중요성과 예시적이거나 모범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세션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부분에 대한 설명적인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은 구약 역사에 관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역사적 부분에 있는 역사적 본문에 대해 설교한다면, 당신은 다음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 역사적 또는 서술적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확실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설교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거기에 두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역사적인 본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 역사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성경 연구 과정이나 주일 학교 수업과 같은 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설교의 강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을 때 이삭을 위해 아내를 마련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우물가에서 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삭에게 미리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와서 그에게 물과 가축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녀는 돌아가기로 동의합니다. 리브가는 돌아가서 이삭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24장의 해당 장을 예로 들면, 그 장에 대한 설교는 단순히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당신이 그 구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설교자가 단순히 이삭이 아내를 찾은 방법,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은

방법을 회중에게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가 자신의 임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교수는 구약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아무리 극적이고 매력적으로 할 수 있더라도 단순히 역사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를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은 실제로 역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의 의미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동시에 예언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필요와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예언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역사적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준다는 점에 우리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바로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며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문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과 매우 다른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적 본문을 설교할 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화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창세기 24장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방법이자 확실히 초대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은 우화적 방법일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화하여 역사적 사실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이제 그 방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많은 교부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의 특정 형태를 접하지만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 창세기 24장을 다시 활용하여 그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화적 방법을 사용하면 이야기의 사실이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대표되는 신부, 곧 교회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확보한

아브라함의 종 -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엘리에셀 - 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설교자입니다. 리브가가 날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다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길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물을 길 수 없어도 물을 주어야 하는 낙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되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낙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서 귀걸이와 팔찌를 받았는데, 이는 교회가 말씀 선포를 통해 인내와 인내의 덕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났을 때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낙타는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신자가 분리할 수 있는 죄의 형상이다. 그런 종류의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에셀이 십계명을 상징하는 열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낙타에서 율법의 형상을 봅니다. 낙타는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물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듯이, 법에서는 결코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관련성이 높아지고 최신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물론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주신 것일까요? 이 우화적인 방법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덜 급진적인 형태로 직면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일종의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언급한 일부 요점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을 접합니다. 내 생각에 분명한 것은 이런 종류의 접근 방식은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에이소게시스(eisogesis), 즉 이러한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동일한 본문에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다양한 주석가가 그린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만들거나 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얻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메시지는 유추를 통해 텍스트에 적용되고 적용되는 영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가 상실되거나 모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우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의 포도원 이야기가 그 예이다. 포도원은 경작되고, 둘레에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실을 이미지나 그림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약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화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창세기 24장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인 40년대 말과 5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는 특히 신학계에서 모범적 설교와 구속적 역사적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학 문제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교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속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설교합니까, 아니면 모범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설교합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이 둘이 반드시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쟁에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의 죄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경고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구약성서의 많은 성도들의 믿음, 기도 생활, 선행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따라서 모범적인 설교는 기본적으로 다음 패턴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하거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서 그 구절의 예시적인 사용에 대한 예를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원했지만 이삭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으로 알려진 하란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서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구하라고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모범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 부모들도 자녀들이 세상의 동료나 소녀들과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자와 결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혼합 결혼에서 볼 수 있는 당시의 사악함, 즉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걱정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의 문화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모의 말은 흔한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가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관해 말할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옳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시스템의 결과가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에 관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또 다른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 종은 하란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표적을 구하여 이르시되 소녀가 물로 나아와서 너희가 택한 것이 될 이 확실한 일을 행하느냐.” 소녀가 와서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물을 길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기도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종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좋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기꺼이 준 것이 우리 딸들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리브가가 그 상황에서 행동한 방식에서 행동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당신은 그 이야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많은 교훈이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임의적 이의제기

이제 그런 종류의 취급에 대해, 그 시점에서 본문에 대한 취급을 그냥 놔둔다면 다양한 반대가 제기되었고 이는 예시적 접근 과 구속적 역사적 접근 방식의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그 접근 방식에는 임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모범으로 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 24장과 관련하여 오늘날 동료나 소녀가 그들이 만나는 동료나 소녀가 주님께 의해 그들의 파트너로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주님께 표징을 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그 부분도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파트너를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한 다음 와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는 방식입니까? 여러분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절차로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 그런 종류의 특별 계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주제넘은 것이라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정경은 닫혀졌고 계시도 중단되었습니다. 계시는 구원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그 문제가 아니라 -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와 씨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범적으로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따라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런 종류의 메시지에는 임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반대

이런 종류의 방법의 두 번째 점은 그것이 인간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문의 특정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설교에서 그런 종류의 것을 도덕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마리아 등 다양한 성경 인물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측정합니다. 당신은 이를 따라야 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할 예로 제시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그 이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위대한 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다. 그것은 인간중심적이다.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관점을 결코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단지 모범적인 방식으로 구절을 다룬다면, 회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과 그의 백성을 위한 행동에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사적 설교를 사용한 창세기 24장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소위 모범적인 설교 유형에 반대하여 구속적 역사적 설교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구속의 계시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하려는 설교이다. 계시의 진행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계시와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 행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는 인간이 행한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행위의 역사이며, 그분의 행위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시화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가리키는 역사이다. 나는 회중이 성경의 역사적 본문을 접할 때 그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 있는 것은 바로 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도덕주의가 아닌 바로 여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

이제 구속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가리킨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종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하인, 리브가 또는 다른 사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결혼을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의 작은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사람을 그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사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염두에 두신다는 사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혼을 결합시키시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분의 성약을 지키신다는 지식은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단지 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십니다.

모범적이고 구원적인 역사 설교

이제 나는 모범적인 역사 설교와 구원적인 역사 설교 사이의 같등이나 모순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를

받습니다. 문제는 특히 이 나라에서 모범적인 이야기가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분리되어 구약의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순전히 도덕적이거나 모범적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는 위대한 사역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

예시적인 접근 방식 으로 인한 통일성 문제

전적으로 예시적이거나 설명적인 방법 의 약점은 성경의 역사를 수많은 작은 독립적인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각각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구속사의 움직임에서 사건의 위치나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작은 이야기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구속사 안에서 서로의 관계와 통일성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경을 모범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성경 역사의 중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의 설교 방법에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의 사람은 왜냐는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 하나의 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서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표적과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접근 방식의 지속적인 타당성은 정경이 영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서 성경의 정경이 없었고 표징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의 관계

그것은 이 전체 논의의 또 다른 측면을 불러일으키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의 관계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리는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역사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역사를 단순히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역사는 단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부분을 예시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유나 우화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단순히 예시로 삼는다면 벨하우젠 비평학파의 SR Driver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요성과 실제 의미는 그것이 나타내는 성격의 유형과 도덕적, 영적 교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은 신앙과 선함의 모범이요, 때로는 무가치함과 실패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라이버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좋은 예와 좋은 예, 나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구속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도덕적 교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구속사에서 그러한 사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요하고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계시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버의 믿음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 본문 설교에 대한 추가 성찰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구속사 과정에서 행해진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 구약성경을 통해 약속의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적 구속의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단지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솝 우화를 설교하고 많은 경우에 똑같이 유효한 요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특정 교리나 진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는 설교는 요한복음 20장의 도마가 의심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를 찾는다면 굳이 성경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이 유효한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텍스트로 교리적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설교할 역사적 본문이나 설교를 선택한다면, 그 내용을 온전하게, 구속사의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예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 구속의 진행 과정과 어떤 면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좀 긴 얘기였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사적 서술로부터 타당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 그러한 질문 중 일부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딘가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구속적인 역사적 관점을 보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의 다른 일부 이야기에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말로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논평과 출판된 자료를 보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방향, 특히 설교학 서적의 예시적인 예시적 관점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시적이고 예시적인 관점으로 가득차 있고, 구원사적 접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이 되는 방식이 항상 구속적 역사적 기능의 맥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시적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자의적이지 않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타당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장이나 절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Isaac Capital E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이앤 타르(Diane Tarr)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Emily MacAdam 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